

# 전후 국가발전전략의 전개와 케인스 정치경제학

백종국 | 경상대학교

이 논문은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화된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을 유도했으며 신자유주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케인스의 저작들은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도 국가의 발전전략 추구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유효수요론을 바탕으로 성장회계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 둘째, 투자와 통화의 국가 관리를 통하여 경기순환의 곁을 줄이고 부의 분배와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케인스 정치경제학은 영미 중심의 시야, 1970년대 이후의 경기침체, 이론의 화석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비판과 한계에 직면한 바 있다. 2000년대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함께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복귀를 초래하고 있다. 케인스 정치경제학은 공동체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발전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어:** 발전전략, 케인스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 유효수요, 국가개입, 성장회계, 공동체주의

## I. 서론

한동안 세계적 영향력을 누리던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구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도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지배하에 있던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동안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세계은행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금융의 국제화에 앞장을 서던 국제결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금융위기 극복 여부가 내부금융 비율의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

다(Caruana 2009).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를 보면 발전모델이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김원호 2005),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제3의 대안이 요청되기도 한다(안청시 2002).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함께 이전의 국면에서 주류이론의 위치를 누렸던 케인스 정치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하고 있다(Time 1965; 2008). 예컨대 금융위기로 인하여 케인스의 화폐이론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한영빈 2008). 중요한 점은 발전전략의 개념이 케인스 정치경제학을 통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정책으로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발전전략의 수립 문제는 케인스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실천적이며 중요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주류 경제학 안에서 케인스주의로 내장(embedded)되면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만일 금융위기의 해결사로서 국가의 시장개입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다면 발전전략의 이론적 기원이었던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새로운 조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재조명이 반드시 과거에 케인스가 제시했던 해결책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정진영 2009). 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소위 케인스주의라고 부르던 과거의 체계가 어떤 점이 문제이며 새로운 조명은 어느 각도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지가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이다.<sup>1)</sup>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논문은 먼저 전후 발전전략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한계와 한계의 원인을 다루고자 한다. 학문 세계에서 나타나는 매개의 변증법은 케인스의 후계자들 즉 케인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케인스의 저술들이 주장하는 바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적절한 분석도구이다. 마지막으로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재조명을 위하여 발전전략의 공동체적 성격이 추가되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II. 발전전략론의 기원: 케인스의 고전주의 비판

어떤 국가의 발전전략은 그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책 선택의 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Mares 1985).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전략이란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역사적 지배연합의 선택이며 이는 이 지배연합이 처한 정치경제적 구조와 이데올

1) 이 논문에서 “케인스 정치경제학”은 케인스의 저술에서 나타난 논의들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케인스주의”는 경제학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후계 집단을 지칭하고 있다.

로기에 따라 변하고 있다(백종국 2009). 이러한 발전전략의 개념 안에는 주로 생산과 분배, 무역, 금융 등 경제적 관심사가 포함되지만 때로 정치, 군사, 문화 등의 다원적 관심사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모든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정치경제학이라는 관점 안에서 일관성을 찾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체계적 발전전략은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의 제국들로부터 산업혁명 직전에 이르는 국가들의 발전전략들은 군사적인 약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정치적 군사적 지배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서 경제적 잉여를 확보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이 잉여가 소진되면 제국도 함께 붕괴하곤 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기계의 도움으로 영토의 확장 없이 산출의 폭발적 증가가 가능해지자 지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하던 발전전략은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18세기 중엽에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연구는 생산과 분배, 화폐, 금융,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조정하는 조세 및 재정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자유주의 발전전략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엮어서 보여주었다.

아담 스미스는 발전전략의 목표가 국부, 즉 인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증가라고 생각했다(Smith 1976). 스미스의 정의는 금은의 증가를 국부라고 생각하는 중상주의적 발전전략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국부의 증가에 있어서 출발은 분업인데, 분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출이 증가되면, 임금이 인상되고, 그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소비가 증가하면 바로 국부의 증가를 의미하는 데, 이는 자본의 증가와 새로운 수준의 분업을 초래함으로써 발전의 선순환이 완성된다. 이러한 선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국내외적 독점 체제, 즉 길드와 보호무역—를 최대한 축소하는 대안들로써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이 제시되었다. 이 발전전략의 주체는 고립분산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이론 구조에는 본질적인 모순이 있었다. “자유로운 주체들의 선택을 제약하는 공통의 전략”이라는 모순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전략은 케인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케인스는 아담 스미스의 발전전략이 그의 후계자들—맑스가 “고전주의자들”이라고 부른 리카도, 세이, 밀, 마샬 등—에 의해 부정확하게 계승된 것으로 보았다. 실제 세계에 있어서 발전의 사슬은 각 단계마다 균열을 맞고 있다. 예컨대 임금은 집단 협상의 대상으로 경직적이며, 강한 유동성선호로 인해 소득은 소비로 연결되기 어렵고, 투자의 동기는 소득예상이 아니라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s)이었다. 특히 소득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데 이는 실제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성향과 상대적으로 강한 유동성 선호, 점차 저하되

는 투자의 한계효용 및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성향 등으로 유효수요의 부족이 현저히 나타나게 되어있다(조순 1982, 239-240).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가 고전주의적 사고에 머무는 한 그 국가는 지속적으로 불황을 겪게 된다.<sup>2)</sup>

케인스의 발전전략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투자의 엔진인 유효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 전략한 고전주의 정치경제학을 극복하고 현실에 입각한 포괄적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1931년 11월의 『에코노미카』 논평에서 케인스는 “세계가 겪는 고통들은 물질의 파괴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비물질적 도구—좀 더 간단히 말해, ‘명징한 사고’—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이론과 통치술의 결합’ 곧 정치경제학”이라고 선언했다(Skidelsky 2009, 70).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보여준 “명징한 사고”의 영향은 전후 세계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 영향은 유효수요론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회계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케인스 이전에 경제성장은 시장이 자동 조정하는 신비로운 현상이었으나, 케인스 이후에는 국가 발전전략의 목표로서 통제 가능한 변수들 간의 결과물이 되었다.

한 사회의 유효수요는 총수요함수와 총공급함수가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되며 실제 소비와 실제 투자를 합친 것이다(Keynes 1964, 63). 이와 같은 국부 산출의 함수화는 그의 후계자들로 하여금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산함수 모델을 개발하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해로드-도마 모델이다. 이 모델은 케인스의 논지에 따라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성장과 실업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생산요소의 투입과 산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진국의 성장 모델로 사용되었다(Gillis et al. 1987, 44). 케인스가 투자승수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자본산출계수인데 해로드 자신은 이 개념이 케인스의 정태적 성장 모델에 역동성을 부여한 핵심이라고 생각했다(Harrod 1973, 56-57).

이 모델의 발전전략적 함의는 매우 크다. 자본산출계수는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나머지 변수의 통제를 통해 효과적인 성장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률을 먼저 정하는 경우, 공식을 의거하여 필요한 투자량을 결정할 수 있다. 알고자하는 연도의 투자량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식에 의거하여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다. 자본산출계수

2) 유효수요 문제는 이미 맬서스가 제기했으나 리카도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케인스는 한탄한다. “마치 이단심판소가 스페인을 정복했듯이 리카도는 영국을 정복하였다(Keynes 1964, 32).”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 이것이 영국의 국교이다”라고 비판했다(Keynes 2004, 21).

는 대체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들에서 높은 편이다.<sup>3)</sup> 이 모델은 솔로우-데니슨의 성장요인 분석 모델이나 레온티에프-칸토로비치 산업연관표 모델 및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국가 전체의 세밀한 경제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들로 발전하였다(Gillis et al. 1987, 48-50, 127-131).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전후 세계의 발전전략에 미친 두 번째 영향은 투자와 통화의 국가 관리를 통하여 부의 분배와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점이다.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목표가 안정적 성장과 고른 분배의 달성이라는 점은 그의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의 결론에서 명백히 선언되고 있다. 그는 고전주의 이론(혹은 자유주의 발전전략)이 “사회지배층의 이론”으로서 “사회적 부정의와 명백한 잔인성”을 경제 성장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은 용인할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이토록 심한 불평등”은 이해할 수 없다(Keynes 1964, 33, 374). 고전주의 이론이 비판되어야 할 이유는 이 이론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현 체제에의 순종을 설득하고 강자들에게는 전횡의 자유를 부여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sup>4)</sup>

일차적으로 케인스는 유효수요를 창출할 강력하고 활기 있는 국가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사회 전체의 유익과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재의 한계효용을 계산할만한 위치에 있으므로 투자를 직접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더욱 더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단순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만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Keynes 1964, 164).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 곳이라면 “차입지출(loan expenditure)”도 바람직하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이나 중세의 대성당 건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낭비적으로 보일지라도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행위는 해당 사회의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완전고용을 이루는 사회가 되면 비생산적인 부문에 할당되던 부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만일 어느 국가가 고전주의 이론을 따라가면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투자와 고용은 하락하면서 이자율은 도리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케인스가 “유동성 선호”라고 부르는 화폐 축

3) 1970~1981년 한계자본산출계수(ICOR)를 볼 때 아르헨티나는 13.3으로 미국의 6.6, 일본의 7.4에 비해 도리어 더 높은 편이다(World Bank 1983).

4) 케인스 이전에 이미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고전주의 이론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의 무역과 산업을 지배하고 그 인민들을 노예화하는 도구로서 자유무역이라는 모토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List 1983, 24-25).”

적의 욕구를 강화하게 되어 마침내 부유한 사회들은 마이다스 왕처럼 황금도시 안에서 굶어죽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Keynes 1964, 219). 이와 반대로 만일 어느 국가가 케인스의 제안을 따라 유효수요를 창출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자본이 풍부해져서 자본의 한계효용과 이자율은 점차 하락하게 되고, 특별한 제도적 장애가 없다면, 이자율은 0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지대추구 계급 및 “자본의 희소성을 활용한 자본가들의 억압적 권력”은 마침내 안락사하게 된다(Keynes 1964, 376).

케인스 정치경제학에서 나타나는 완전고용의 비전은 민주주의나 국제평화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권위주의적 체제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짝을 이루어 비자발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효율성과 자유가 희생되고 있다(Keynes 1964, 381). 국제평화는 각국이 국내의 완전고용을 달성하므로 이룩될 수 있다. 19세기를 지배한 자유방임주의와 금본위제는 국내의 유효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시장의 확장을 채택했기 때문에 국제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만일 어떤 국가가 그들의 국내 정책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 구태여 다른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정책에 몰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Keynes 1964, 382).

### III. 케인스주의의 문제와 발전전략의 다양화

목적으로만 본다면 케인스의 발전전략은 아담 스미스의 발전전략과 다를 바 없다. 그 목적이란 인류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체제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물론 조순처럼 “어떻게 하면 영국경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테두리 속에서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의 목표였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조순 1982, 289). 그러나 “자본주의를 구출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는 사후적이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표현이다. 케인스는 자신의 정치경제학이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의 도그마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적적 결합”을 달성하는 현 추세의 일부라고 생각했다(Keynes 2004, 18-19).

문제는 케인스의 시야가 기본적으로 영국, 그리고 차후에는 미국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스미스의 자유주의와 함께 리스트의 민족주의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당시 정치경제학 패러다임의 중요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으나 이들의 저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그는 사회주의를 언급할 때에 “루소, 페일리, 벤담 그리고 고드윈의

사회주의와 민주적 평등주의”를 지적하고 있다(Keynes 2004, 18). 그의 주요 관심사는 확실히 영국과 미국 중심의 서구 제국들이 처한 난관의 성격과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에 있었다. 전후 세계에서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경제학 내의 케인스주의로 고착되고 이 케인스주의가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에 다 적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발전전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케인스주의에 필적할 바는 아니지만, 전후 세계에서는 무수한 발전전략들이 등장하였다. 패러다임 수준에서부터 대외개방의 수준에 관한 처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발전전략과 제안들이 나타났고 실제적으로 어떤 국가들은 이 중의 어느 방안을 채택하고 있었다.

패러다임 수준에서 나타나는 발전전략의 종류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주의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Gilpin 1987, 25-54). 이들의 목표는 모두 인간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풍요하게 사는 것이지만 이 목표에 이르는 분석의 단위나 논리는 각자 다르다. 자유주의의 분석단위는 개인 혹은 개별기업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가격 신호를 따라가면 이 목표가 달성된다. 민족주의의 분석단위는 민족이고 현실적인 민족공동체의 균형성장을 통해 이 목표가 달성된다. 사회주의의 분석단위는 계급인데 계급투쟁을 통해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킴으로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거셴크론은 발전전략의 후발성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의 유형을 정리했다(Gerschenkron 1952). 산업화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가장 앞선 영국은 상업은행으로 족했는데 비해, 그보다 후발국가인 프랑스는 개입주의적 국가와 투자은행, 그보다 더 늦은 독일은 개입주의적 국가와 투자은행 그리고 강력한 민족주의를 필요로 했고, 가장 늦은 러시아는 아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가가 후발산업화를 관장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산업화의 후발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발전전략의 주요 특징인 것이다.

월러스틴은 세계체제의 돌파라는 차원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발전전략이 전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Wallerstein 1979, 76-92). 근대 세계는 자본주의적 중심부와 주변부 그리고 이 사이에 위치한 반주변부로 계층화되어 있는 데, 세계체제 돌파란 이 계층들 사이의 상향이동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대략 세 가지이다. 자주자립체제(self-reliance) 전략은 세계체제의 압력이 없었던 시기에 자급자족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영국, 미국, 독일, 소련 등의 선진국가들의 경우에 적용된다. 기회포착(seizing the chance) 전략은 전쟁이나 대공황으로 중심부의 압력이 줄어들거나 차단되었을 때 가능한 전략으로서 양차 세계대전기의 브라질이나 멕시코, 세계대공황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들 수 있다. 초청에 의한 승

진(promotion by invitation) 전략은 중심부 국가들의 전략적 목적에 의해 육성된 국가들의 사례로서 대만과 한국을 들 수 있다.

각 국가들이나 세계기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발전전략의 유형은 내부지향과 외부지향의 양대 발전전략이다. 이는 발전전략의 주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내부지향적 발전전략에는 자급자족체제 전략과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 있다. 자급자족체제란 생활물자의 생산과 소비를 국내체제의 틀 안에서 완결시키려는 전략으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추구해왔던 전략이다. 종속이론 등 자본주의의 비판이론들이 지향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수입대체산업화는 국제체제에 일정한 참여를 유지하지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산품의 수입을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해 점차 대체하려는 전략이다. 양차 세계 대전의 시기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수행한 발전전략이다.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에는 일차상품수출주도전략과 수출대체산업화전략이 있다. 일차상품수출 전략은 국제 분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일차산품(커피, 소고기, 석유 등)의 수출을 통해 국부를 증가시키려는 전략이다. 현재의 중동이나 덴마크 등 유럽의 소국들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의 국가들이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대체산업화는 해외시장을 위한 수출품목을 일차산품에서 공산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매우 특이한 형태로서 한국과 대만 등 몇몇 국가들만이 성공한 전략이다.

전후의 발전전략이 다양하다고해서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발전전략이든—특히 서구의 혼합경제나 개발도상국의 개발경제에 있어서—케인스 정치경제학에서 발달된 모델과 논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무엘슨의 고찰에 따르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저축과 투자의 금융적 상호작용에 대한 케인스의 통찰은 현대 정치경제학의 근간이다. 경제학자라면 그가 “케인스주의자”이든 “반케인스주의자”이든 혹은 “탈케인스주의자”이든 이 공리에 대한 인정은 일반적이며 심지어 “맑스주의자”들도 이 통찰의 설명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Samuelson 1976, 205).

케인스 정치경제학에 대해 가장 일관적인 비판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발견된다. 신자유주의의 비판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한 지구적 스태그플레이션에 기초하고 있다. 케인스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경기침체는 주원인은 이윤율의 하락이었다.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박종현 2008, 149). 첫째, 지속된 고도성장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노동자의 교섭력이 커지고 임금의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의 상승률보다 빠르게 되었다. 둘째,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엄격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테일러주의가 약화되었다. 셋째, 기업 간 경쟁격화에 따른 과잉투자가 노동력의 가수요와 과잉설비를 초래하였다. 생산성은 하락하는 데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유효수요론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산업간 평화가 붕괴하게 되었다.

사회보장비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의 요인이 되었다. 유효수요론에 따르면 사회보장비 지출은 비록 차입지출이 있더라도 고용을 창출하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완전고용이 이룩되는 상황에서 이는 더 이상 유효한 논리가 아니었다. 사회보장비를 위한 세금 인상과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발행은 차변과 대변에서 모두 재정적자에 공헌하게 되었다. 생산이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유효수요의 확대는 호황을 유도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박종현 2008, 152).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스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케인스주의의 유효수요론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유지정책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노동자의 임금 불만 그리고 정부의 통화발행을 동시에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고실업과 고인플레이의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박종현 2008, 153).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핵심은 자유방임 시장체제로의 복귀이다. 총수요 관리정책을 폐기하고, 통화가치의 안정과 자유경쟁 시장의 작동을 추구하며, 기업에 대한 담세율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할 뿐 아니라, 제도개혁을 통해 노조와 기업의 협상에 의존하는 정치적 소득 결정 과정을 거부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재정과 통화의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케인스주의 비판은 미국의 패권체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197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는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에 더 많이 기인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전후 미국 패권 체제의 불안정한 구조이다.

전후 미국 패권의 근본적 불안정성에 대하여 이미 케인스는 예언에 가까운 통찰력을 제시한 바 있다.<sup>5)</sup> 미국은 전후 세계를 미국의 이상과 이익에 종속되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세계대전 직후에 국제체제를 안정시켜야한다는 당위와 미국예외주의가 어울려져 나

5) 전후 미국 패권의 틀을 놓은 화이트 안에 대하여 케인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정치적 지혜가 부족한 것은 여전했고 기술적 역량에서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며 어떤 규정들은 무제한의 금을 소유한 한 국가(미국)의 이익을 위해 상당히 이기적으로 작성되었다(Skidelsky 2009, 419)."

타난 현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미국의 국내통화인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발권력(issuing power of money)에 따른 발권효과(seigniorage)를 누리 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발권효과와 특징은 세계인의 미래 소득 일부분을 달러의 발권자인 미국이 앞당겨 쓸 수 있다는 데 있다(Gilpin 1987, 77; 백창재 2009, 183). 동시에 이 결정은 미국에게 피할 수 없는 불안정의 숙명—국내 통화의 국제화로 발생하는 유동성 공급과 통화불안정 사이의 딜레마, 즉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을 초래했다(Triffin 1960).

케인스는 이 점을 회피하고자 국제기구의 형태는 청산동맹으로 하고, 청산을 위한 통화로 “방코(bancor)”를 제안하였다(Skidelsky 2009, 341). 그러나 좀 더 양보하여 화이트가 제시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통화로서의 “유니타(unita)”조차도 긍정적이라고 보았다(Skidelsky 2009, 4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 국제통화로서의 “유니타” 안은 살아남지 못했다. 케인스의 우려는 이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적자는 2008년 기준으로 10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 자본은, 케인스의 표현처럼, “더 안전한 곳의 소재를 찾아 마법의 양탄자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Skidelsky 2009, 340).

케인스 정치경제학을 계승한 케인스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문에서 발생하는 매개의 변증법이었다. 매개의 변증법이란 매개자가 매개의 본질보다 선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순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소외가 가중되고 결국 체제 자체가 붕괴하게 되는 경로를 의미한다(백종국 2009, 29). 학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학문의 원래 목적 보다는 학문 그 자체의 발전에 점차 몰두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예컨대 케인스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주장 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정부의 역할을 신봉했고 이를 계량화하는 데 몰두했다. 케인스가 개발했으나 신속하게 고전주의와 결합하면서 신고전주의로 진화한 성장회계기법은 마치 국가가 수학적 계산의 능력만 갖추면 공동체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전후에 각 국가가 발전단계를 불문하고 다양한 수준의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경향은 매개적 상화를 불러일으켰다. 스킨델스키(Robert Skidelsky)가 요약한 바와 같이 케인스주의자들은 “케인스의 도구는 상속받았지만, 그 도구의 범위와 효율성의 한계에 대한 그의 철학은 물려받지 못했던 것이다(Skidelsky 2009, 18).”

이미 케인스는 이러한 수단, 특히 수학적 수단에 성장의 매개를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예컨대 투자행위는 인간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이며 투자를 향한 “동물적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이 동물적 감각이 침체되고 자생적인 낙관론이 꺾이면,

우리들은 자연히 수학적 기대 계산에 의존하게 되고, 마침내 기업들은 소멸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Keynes 1964, 162).” 그는 수제자 해로드에게 “다음번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가변함수에 실수를 채워 넣는 일의 위험에 대해 낙하하는 사과를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Skidelsky 2009, 158).

케인스주의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해로드-도마 모델은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발전전략을 매우 제한적으로 동태화한 오류를 범했다. 시간의 변동에 조응하는 것은 자본산출계수 뿐만이 아니다. 우연한 발명, 정치적 리더십, 예측하지 못한 노사분규,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전쟁, 수시로 발생하는 지진이나 해일 등은 유효수요의 일관된 추정과 예측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한다. 우연적 요인을 대폭적으로 배제한다 해도 개인소득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표현되는 경제구조의 변화는 시간의 함수일 뿐 아니라 함수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이다.

개발경제학자인 허쉬만의 인플레이 연구는 동태성과 구조성에 대한 케인스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이다. 허쉬만은 정치적 지배연합의 변동이 인플레이 발생의 역동성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Hirschman 1981, 177-207). 인플레이는 단지 화폐의 발행 문제가 아니다. 인플레이는 그 자체가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려는 공동체적 행동이며 이것으로 유익을 얻는 집단들과 손해를 보는 집단들 사이에 진행되는 치열한 줄다리기의 결과이다.<sup>6)</sup> 현실적으로는 발권력을 장악하는 지배연합을 누가 구성하느냐, 이 지배연합 구성원들이 인플레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지배연합의 구성원은 반드시 계급적 분열선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주 관찰되는 바이지만, 노동자계급이나 자본가계급 내에서 인플레이의 효과와 인식을 둘러싸고 계급 내 분열이 발생하며 어느 그룹은 지배연합에 포함되고 다른 그룹은 반지배연합에 합류하고 있다.

#### IV.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복귀와 공동체적 조정

1980년대 이후 한동안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돌풍에 휩싸였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필두로 선진국에서는 공공 부문의 차입억제, 기업에 대한 감세, 사회보

6)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케인스의 학생이었던 로리 타르시스의 표현처럼, “수용소나 처형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사회적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수단이다(Skidelsky 2009, 153).

장정책의 축소, 통화량 억제,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실시되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확보했던 각종 권리는 대폭 줄어들고 기업가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인플레이션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더욱 강화된 처방이 실시되었다. 여기에는 선진국의 처방들과 함께 금융자유화, 변동환율제, 외국인투자개방, 규제완화 등이 세계은행의 충고나 국제통화기금의 대부 조건 형태로 추가되었다(Williamson 1989).

그러나 케인스 정치경제학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도전은 불과 십 수 년 만에 파국을 맞이했다. 국내 계층 간 혹은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성장률은 정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금융위기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미 1980년 이래 서구 국가들에는 경기후퇴와 재정적자 증가, 대외부채 증가, 경쟁력약화를, 후진국에는 빈곤층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 비공식 부문의 증대, 이에 대한 반발로 좌파 정부의 집권 등의 현상을 초래했다(김원호 2005). 규제완화와 공급주의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도리어 유발하고 있었다.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가장 극적 현상이다. 이 위기의 원인은 금융자유화 이후 진행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위험감수행위와 함께 금융의 투기적 본성을 통제하지 못한 제도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조복현 2009; 황준성·윤여협 2009). 이러한 점에서 경제위기의 해소 방안으로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케인스 정치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근본적 차이는 전자가 실용적 접근을 중시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교조적으로 접근한다는 데 있다. 이 점은 이미 케인스 자신이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하이에크의 『예종의 길』(*the Road to Serfdom*)에 대한 논평에서 케인스는 하이에크가 현실과 이론을 혼동함으로써 중간노선의 실효성을 과소평가하고 결과적으로 극단적 논법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kidelsky 2009, 406). 이러한 화폐주의 극단론은 논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에 적용하려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있다. 논리를 정교하기 위해 수단의 속성에 더욱 의존하면 원래의 목적과는 멀어지게 되어있다. 문제는 학문의 세계에서 논리의 정교성이 이론의 우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원래의 이론적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정치경제학의 계량화로 본다면 케인스 정치경제학보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이 훨씬 더 유리하다.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국가 공동체의 감정적 요소까지 포함한 포괄적 이론 체계를 추구한다면, 신자유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우

정교한 수량화가 가능하며, 비록 수많은 전제들로 둘러싸여있지만, 대체로 경험적 검증은 전제를 증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케인스주의자들이 계량화를 추구한 것은 바로 이 주류적 흐름과 타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케인스주의자들이 계량화에 의존할수록 케인스가 원래 강조하려고 했던 요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며, 상대적으로 이론화의 약점이 더욱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추구했던 이론적 실용성을 잘 보완해준다.<sup>7)</sup>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이며 분해된 형태의 초월적 주체이며 자본도 그러하다는 인식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다(Sandel 1998, 7-11).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본은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고적 자아”와 마찬가지로 “연고적 자본”이 있을 뿐이다(백종국 2009, 476). 자본주의의 주체인 모든 형태의 자본은 특정한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특정한 이유로 성장하거나 소멸되고 있다. 어느 경우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존재는 사회와 적극적으로 결합을 통해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개인주의는 사회적 결합물인 자본에 초월성을 부여하여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까지 승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의 강조는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규범적 차원에 새로운 조명을 제공한다.<sup>8)</sup> 세계 대공황기 이후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위기 극복의 때에는 공동체가 강조되지만 위기 종료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강조도 종료되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자본가들이 비효율적인 투자와 영업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라도 국가는 그들을 구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켜서 체제의 장기적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자본가들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 공동체로부터 방대한 자원과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경우

7) 케인스도 어느 정도 공동체적 관점을 도입한 바 있다. 예컨대 소비성향에 대한 “객관적 요인들”에 관한 분석을 들 수 있다(Keynes 1964, 91-96). 그러나 케인스 정치경제학 전반에 있어서는 고전주의의 전제인 경제적 행위자로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8) 케인스의 경우 규범적 차원은 주로 분석적 차원의 보조적 설명이었고 직설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비꼬는 말로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그렇다면 재무부가 은행권을 병에 담아서 폐광 안에 묻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잘난 ‘자유방임’ 원칙에 매달리고 있는 사기업들로 하여금 알아서 파내가게 하는 것도 좋겠지…”(Keynes 1964, 129).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1조 3천억 달러를 투입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9.4%에 해당하고 있다(강석훈 2008, 17). 무엇보다도 기업구제의 결과로 대형은행들의 자산규모 비대화와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가 더욱 촉진되었다는 점이다(한국금융연구원 2010). 공동체적 통제와 조정이 없다면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기업 시민권 등은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나는 새로운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 V. 맺는 말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한 발전전략의 논의는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유용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Cartapanis and Herland 2002). 케인스의 저작들에서 나타난 케인스 정치경제학은 유효수요론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의 동기를 마련하였으며 투자와 통화의 국가 관리를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부의 분배와 사회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전은 민주주의나 국제평화वाद도 짝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은 시대적 보완을 거친다면 지금도 유용한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케인스 정치경제학에도 약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케인스의 시야가 영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후 세계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매우 다양한 발전전략들이 나타났으나 어느 정도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도전을 받았으나 실제로 발생한 것은 미국 패권의 모순적 구조가 초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리어 더 큰 문제는 경제학 영역내의 논의로 스스로를 제한하게 된 케인스주의가 학문에서 발생하는 매개의 변증법에 빠졌다는 점이었다.

2000년대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는 케인스 정치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수십 년 전에 제출했던 케인스의 제안들이 지금도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복귀에는 자본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가 초래한 치명적 결과로 인해 국가가 대규모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자본의 공동체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독점과 재정적자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공동체적 조정과 통제가 없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케인스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시대의 발전전략 수립에 유용한 이론적 맥락을 가지

고 있다.

투고일 2010년 7월 30일  
 심사일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30일

## 참고문헌

- 강석훈. 2008.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International Business Institute Review* 14. No. 2, 9-37.
- 구춘권. 2000. "화폐적 축적의 자립화 : 포드주의의 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팽창." 『한국정치학회보』 34집 3호, 293-312.
- 김원호. 2005.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모델은 순환하는가?" 조돈문·김종섭·이내영 편. 『라틴 아메리카 :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 오름, 29-69.
- 박세일. 2006.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서울: 21세기북스.
- 박종현. 2008.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서울: 김영사.
- 백종국. 2009.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파주: 한길사.
- 백창재. 2009. 『미국 패권 연구』. 고양: 인간사랑.
- 안청시. 2002.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발전전략 : 민주주의와 지역협력에 대한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12권 2호, 1-27.
- 정진영. 2009. "케인스, 국제통화체제, 세계금융위기: 케인스의 복수와 귀환?" 『국제정치논총』 49집 5호, 173-196.
- 조복현. 2009.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유동성 추구하고 금융취약성 강화." 『경제학연구』 57집 1호, 215-241.
- 조순. 1982. 『J. M. 케인즈: 생애·학설·현대적 의의』. 서울: 유평출판사.
- 한국금융연구원. 2010. "미국 학계의 금융위기 대응 인식." 『주간금융브리프』 19집 3호, 14-15.
- 한영빈. 2001. "금융 불안정과 정치적 통제의 중요성: 후기케인즈주의의 정치적 의미 중심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2호, 241-260.
- \_\_\_\_\_. 2008. "마르크스와 케인스 화폐론의 이론적 접맥 가능성—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집 1호 (6월), 23-45.
- 홍우형·허재준. 2009. "케인스, 그는 다시 경제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국제노동브리프』 (5월), 28-38.

- 황준성·윤여협. 2009.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경상논총』 27권 3호, 21-45.
- Cartapanis, André, and Michel Herland. 2002. "The Reconstruc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Keynes' Reveng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 No. 2, 1-30.
- Caruana, Jaime. 2009. "Financial Globalisation, the Crisis and Latin America." Speech by General Manager,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4 May.
- Gerschenkron, Alexander. 195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Bert Hoselitz, ed. *The Progres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20.
- Gillis, Malcolm, Dwight H. Perkins, Michael Roemer, and Donald R. Snodgrass. 1987. *Economics of Development, Second Edi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rod, Roy. 1973. *Economic Dynamics*. London: Macmillan.
- Hirschman, Albert O. 1981. *Essays in Trespassing: Economics to Politics and beyo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ynes, John Maynard. 1964.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_\_\_\_\_. 2004. *The End of Laissez-Faire/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Amherst: Prometheus Books.
- Kupchan, Charles A. 2002. *The End of the American Era*. New York: Vintage Books.
- List, Friedrich. 1983. *The Natur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1837)*. translated by W.O. Henderson. London: Frank Cass.
- Mares, David R. 1985. "Explaining choice of development strategies : suggestions from Mexico, 1970-1982."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 (Autumn), 667-697.
- Samuelson, Paul A. 1976. *Economics, Ten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Skidelsky, Robert 저. 고세훈 역. 2009. 『존 메이너드 케인스, 2』. 서울: 후마니타스.
- Smith, Adam. 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 Time. 1965. "We Are All Keynesians Now." Friday, Dec. 31.
- \_\_\_\_\_. 2008. "The Comeback Keynes." Thursday, Oct. 23.
- Triffin, Robert. 1960. *Gold and the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Williamson, John. 1989.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In John Williamson, ed. *Latin American Re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ld Bank. 1983. *World Tables*. Washington D.C.: World Bank.

ABSTRACT

---

## Post-War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Political Economy of J. M. Keynes

Jong Gook Back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olitical economy of J. M. Keynes has contributed to the world-wid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al strategies in the post-war period and is still useful in spite of neo-liberal challenges. Literatures of Keynes showe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al strategy within capitalist economies in terms of two dimensions. First, Keynes' theory of effective demand provided a frame of growth accounting. Second, the political economy of Keynes provided a hope to improve social equality in even capitalist economies by state management of investment and money. However, the political economy of Keynes had been challenged by its Anglo-American centered perspective, the depression of the 1970s, and the fossilization of theor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the 2000s throws doubts on the validity of neo-liberalist critics against the political economy of Keynes and rejuvenates it. The political economy of Keynes will be more helpful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developmental strategy for the new era by incorporating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Keywords:** developmental strategy, Keynesian political economy, neo-liberalism, effective demand, state intervention, growth accounting, communitarianism